

제목 : 스테반의 기도

본문 : 행 7:54-60

시작찬송가 : 204(새288), 350(새320), 408(새302)

헌금찬송가 : 401(새359), 483(새539), 500(새446)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테반은 대단히 탁월한 성경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만일 그가 중도에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매우 훌륭한 성경 교사로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면 그는 뛰어난 선지자적 기질과 선교사의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됴됨이를 훨씬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그의 최후 기도입니다. 죽음 직전의 짧은 기도이지만 여기에는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영혼을 주님께 맡긴 기도

- ① 스테반은 육체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잘 찾기 어렵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는 찾아볼 수 있어도 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찾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스테반처럼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갈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행 7:59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 ② 스테반은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스테반은 영혼의 문제를 위해 간구하되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 146:3-4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슥 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 원수들을 위한 기도

- ① 스테반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스테반은 유대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롬 11:14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행 7: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 ② 스테반은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테반이 죽어 가면서까지 기도한 유대인들은 스테반과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스테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아 주십니다.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저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눅 12:48)'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중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퍼지고 있는 에이즈를 예방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시민이 제가 이런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도울 때에 더욱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치와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느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공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저에게 낙관적인 사고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백악관에 제가 텍사스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사실 텍사스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 많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텍사스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왔고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로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 친구인 톰 리(Tom Lee)의 작품입니다. 텍사스 서부에 있는 산맥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미군들은 포트 브리스(Fort Bliss)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사막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톰 리는 '세라'라고 저의 산의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곳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하루가 지는 모습을 보는 곳이 아니라 하루가 오는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라고 그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 그림의 설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관적인 삶의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낙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르완다에 제가 로라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에이즈 문제 해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저의 행정부가 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된 정책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라와 제가 방문했을 때 50여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부모를 잃었는데 얼마나 부자나라가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미리 도왔다면 부모를 잃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로라와 저는 어떤 장면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 채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자 'God is good(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주저함 없이 'all the time(항상 선하십니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고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God is good!' 아이들이 또다시 'all the time'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돌아가 제 수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삶은 우물합니다. 살아있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라고 해야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미국 대통령이 'God is good'이라고 하자 'all the time'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평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평화와 자유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누군가가 'God is good'이라고 외친다면, 우리 모두가 'all the time'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마디 :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한국교회 8.15 대성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5.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명성교회